

서운함

19980623 화 아침말씀(월명동자연성전북편벽화)주께서나와함께계시옵소서요11:21

그 중 가장 큰 것은 하늘 앞에 서운하게 생각할 때 꼭 쓰러지더라구요. 왜 쓰러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도 서운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것은 월남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많은 경험을 얻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얻은 경험이 지금까지도 청청한 철판 같은 가슴의 신앙으로 남아졌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컸습니다. 여러분도 서운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크나큰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은 해줄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구원만 시켜 주어도 죽을 때까지 아무 것도 안 도와주어도 그것이 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도 서울에 처음 올라갔을 때 보니 하찮은 사람까지도 도와주시면서 나에게는 쌀 한 톨도 안 도와주시기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산에서 기도생활 많이 하고,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에 누가 라면 하나만 주어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연단이라고 할까, 생활 속에 그렇게 살게 하셨기에 견디었는데 참으로 서운했습니다. 이것 저것 다 서운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섭섭함을 느낄수록 밤이 지겹고 눈물겨운 날만 갔습니다. 그냥 막연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 때도 하나님의 뜻이었던가? 아, 하나님의 뜻은 보물찾기와 같구나’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에게 말씀만 주었지 누가 돕는 일은 거의 금지를 시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너는 말씀만 갖고서 살아라”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총한 중을 주면서 “이것을 휘두르면서 살아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안 주었기 때문에 도와주었나 모르겠지만 산에서 기도할 때보면 교역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금방 누가 도와주었다, 교회를 지어주었다, 방을 내주었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나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기도원 쫓아다니며 밥을 얻어먹고, 청소해주던 것을 생각하면 창피스러워서 얘기를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은 꼭 이렇게 길러야만 마니까?’라고까지 했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니 그렇게 까지 갖고 자꾸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오다가 보니까 결국 오늘날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한번에 강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 나무와 같이 야들거리고, 비 한번 맞으면 뿌리가 나오고, 넘어지고, 다 죽어가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야 내가 와서 챙겨주고, 환경 만들어 주고 붙잡아 주고 그러니까. 그래도 손이 다 안 돌아가기에 부지기수로 뒤에서는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에 설교 가운데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팔각정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써놓으려고 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섭섭함을 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 하나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그랬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하셨습니다. 밥을 세달씩 굶었어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라면만 하도 먹으니까 나중에는 얼굴이 노랗게 되고 이상하게 되더라구요. 이와 같이 나도 그렇게 어려운 것을 겪으면서 올라왔으니 여러분도 참고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내가 시험이 덜 들었느냐면 ‘나는 구원만 시켜주어도 하나님께 고맙다고 생각해야지’라고 언젠가 서약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머리 수술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나는 살려만 주면 아무 것도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자수성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 다 데려다 놓아서 하나님께 무릎꿇게 만들겠다고 한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만 주어도 평생 고맙게 생각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여유있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안 해준다고 하지말고, 선생님이 안 만나준다고 하지말고 이 진리만 들은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가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안들 것 같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할 때 시험에 들더라구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소원을 못 채워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속을 다 모릅니다. 모를 때는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를 때는 아주 모르더라구요. 겪어보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나도 그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너무 서운해하실 것이고, 너무 너무 하나님께서는 심정 상하실 것이라고 느껴봤습니다. 사람에게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몰라준다고 속상해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친구에게 대하던 마음과, 여러분끼리 대하던 마음으로 나에게 대하면 나도 굉장히 속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도 놔두었으면 왔다 갔다 하고 길도 없는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메고 마귀들이 조롱할 것인데 그런 데서 일단 빼내주었으니까 이제는 할 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